

주님께 열려 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삶

3/27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9:23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공훈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딤후 2:20

20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딤후 2:21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창 2:7

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롬 9:15-16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공훈히 여길
사람을 공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공훈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 23:1-3, 6

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와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분을
담는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
하셨고, 많은 그릇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존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였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롬 9:23).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공훈에서 나오고 그분의
공훈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의 공훈에 대해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롬
9:21 각주 1)

귀한 그릇들은 신성한 본성(금)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으로
이루어진다. 디모데와 그 외 참된 믿는 이들과
같은 이러한 귀한 그릇들이 진리를 불들어 주는
확실한 기초를 이룬다.(딤후 2:20 각주 3)

오늘의 읽을 말씀

나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주님은 다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열어 드리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꽤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말이 그리
일반적이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담는 그릇을 창조하여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만 열려 있는
그릇을 원하신다. 그릇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릇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된다.

사람의 타락의 참된 의미와 참된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며, 둘째로 사람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측면이 사람의
타락의 참된 의미이다. 원수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유혹한다. 사람이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의 참된 의미이다. 일단 사람이 타락하자,
알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우상숭배나
주술과 같은 귀신적인 것들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교묘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을 알고자 하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도이다. 바로 이러한
악한 것이 원수의 유혹에 의해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온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알기를 좋아하고 행하기를 좋아하는 악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종교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주의한다. 종교는 사람들이 알도록 도와주고

행하도록 도와준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는 알고 행하는 데 매우 활동적인 종교가 되어 버렸다. 신학교는 다만 알고 행하도록 사람들을 교육한다. 신학교는 사람들을 알고 행하도록 훈련시키고 분발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교육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나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다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열어 드리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거의 발견하실 수 없는데,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다만 빈 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이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당신께서 이 질그릇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다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에 의해 침투되고 당신으로 흠뻑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께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장, 361-3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장

3/28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7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엡 3:17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신 6:5

5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으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후 3:16-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다만 우리가 살아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단지처럼 생명이 없는 그릇이라면,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없으므로 주인이 사용하기가 쉬울 것이다. ...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 ... 그분은 강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 가득한 살아있는 단지를 창조하셨다. 타락한 후에 이 살아있는 단지는 하나님께 문젯거리가 되었다. 이 문제는 역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알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일에 너무

열성적이다. 어느 쪽이든 주님은 그릇을 얻으실 수 없다.

이 요점은 신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의 열네 서신서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 우리는 바울의 열네 서신을 요약하면 두 단어, 곧 ‘열린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열린 그릇을 원하신다. 로마서 9 장 23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 장 7 절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두 절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체험하는 기본적인 비결로 간주될 수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장, 363-36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열린 그릇이 하는 것은 채워지도록 자신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다.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삼일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복합되신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가 열어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께 열어 드리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의 눈과 귀와 손을 드렸다. 나도 역시 많은 때에 이러한 세세한 헌신을 했었다. 심지어 나는 내 몸의 모든 머리카락과 모든 세포까지도 주님께 드렸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철저하고 세세하게 헌신한 후에도 여전히 주님께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걸으로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지만, 사실상 자신에게 헌신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를 그분께 열려 있게 하지 못했다. 우리의 헌신은 여전히 자신을 지식과 행함 아래 있게 했다. 이것이 참된 문제이며, 또 한 이

온전케 하는 훈련의 참된 부담이다. 이 훈련의 참된 부담은 여러분의 상태를 지적해 내어 여러분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상을 보았다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이 열려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 열려 있지 않다.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과 행함에 열려 있다. 한 면으로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려 있고 다른 한 면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철학과 논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위해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주님을 최고도로 사랑해야 하지만, 그분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 쉽지 않다. 때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활동적이라는 데 있다. ... 우리는 능동-수동적이어야 한다. ... 주님을 최고도로 사랑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알고 싶은 것과 일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어 두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분께서

오시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닫아 두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길이 없게 한다. (위트니스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장, 364-366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2권, 생명나무, 1장

3/29 수요일

아침의 누림

마 22:37

3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막 12:30

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눅 10:39-42

39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40 마르다는 시종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41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42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일 4:16, 19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 두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누리는 사람, 곧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때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거룩하게 됨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장, 372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생기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깨어 있으며 매우 냉철하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항상 열어 둔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을

멈추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생기가 없거나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아주 많이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열어 두라. 그분께 날마다 이렇게 말하라.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저는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긍휼을 구하며, 당신의 은혜로 저는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을 향해 닫아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완전하고 철저히 열어 두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승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릇이다. 생명으로 충만한 그릇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온 마음...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그릇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을 열어 놓을 필요는 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의 원칙을 알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열어 두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두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열어 두어야 한다. 그러나 행함에서는 멀리 떨어지라. 여러분의 나쁜 성질을 잊어버리라!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죄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의 약점들을 잊어버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열어 두며, 행함을 멈추라. ... 우리의 특이함이라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항상 그분께 열어 두는 것에 달려 있다. 합당한 기도, 더욱 깊은 기도,

참된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려 있게 한다. ... 우리의 행함을 멈추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그리고 참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행함은 멈추어질 것이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죽이는 기도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죽인다. 이렇게 참된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죽게 된다. 사실상 죽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활동이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행함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음 당할 것이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하나씩 하나씩 죽일 것이며, 우리를 잠잠하게 할 것이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부담도 죽일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하고, 비어 있고, 열려 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길을 가지실 수 있도록, 완전히 잠잠한 살아 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행하심을 누린다. 이것이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 두고 자신의 행함을 멈추는 생활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릇은 다만 주님을 담으며,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누린다. 이것이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장, 372-374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1장, 보충하는 말씀(1)

3/30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8:2, 10-11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골 1:27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 3:4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요 6:57b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시 36:8-9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분은 ... 우리를 자신의 신성한 분배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그 영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며, 이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요소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거룩한 숨이 되시어 땅의 모든 곳에 가득하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입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실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의 입으로 들어가실 것이다(롬 10:8-9). 그분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성령, 삼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다.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보충하는 말씀(1), 6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렇게 놀라운 분께서 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조용히 부드럽게 운행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비유할 수 있다. 날마다 하루 스물네 시간 동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조용히 부드럽게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때도 속에서는 어떤 운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소화 작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소화 작용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소화 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동화 작용도 있는데, 그것은 소화된 음식의 요소들을 우리의 피의 일부로 만들고 이 요소들을 우리의 몸의 세포와 조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인격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자리 잡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그분께 돌이켜 그분의 공급을 받아들이기를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꾸짖으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내가 육십 년 이상 주님을 따르면서 체험한 것에 의하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심하게 꾸짖으신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참으로 많은 때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기꺼이 나에게 공급을 주시고 그분 자신을 내 안으로 분배하신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온 인격을 그분의 안식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경륜, 즉 그분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안배는 우리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즉시 결심하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계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온갖 장애물과 문제와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것이다. ...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분을 기쁘시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하기를 원하신다. 찬송가 378 장 1 절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다.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그리스도 내 안에 사네”. ... 위의 찬송에서는 계속해서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묘한 구원”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영광스럽다는 말인가?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네”.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 우리 중 대부분은 때때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산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상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것을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보충하는 말씀(1), 68-69 쪽, 11 장, 197-19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8, 11 장

3/31 금요일

아침의 누림

딤편 1:4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엨 3:9, 16-17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요 14:16-17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상 19:11-12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밖으로 나가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갑자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여호와 앞에서 산을 나누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있었다.

요일 2:27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나의 성경 연구와 나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삼일 하나님과 그 영과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대한 체험들이 전적으로 나에게 정상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한 체험들은 정상적인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 몇몇 속생명파 교사들의 저술들을 읽어 보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영적이고 신성한 것들이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큰 기적들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지점에 이르려면 몇 가지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는 그들의 책들에서 제시한 지침들을 따라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려고 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그 영에 대한 체험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마련해 주신,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정상적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정상적인 것들이 또한 극히 기적적인 것임을 발견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집회와 봉사의 성경적인 길, 13 장, 21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거룩한 계시에 따른 이러한 영적이고 신성한 것들에 관한 나의 체험들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 따라서 나는 '정상'과 '기적'이라는 단어들을 취하여 '기적적인 정상'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내었다. 만일 우리가 문 두드리기를 통하여 합당하고 충분하게 사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합당한 가정 집회를 갖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체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합당하게 갖추 수 있도록 반드시 기적적인 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집회와 봉사의 성경적인 길, 13 장, 211-212 쪽)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열아홉 살 때였다. ... 그 당시에 나는 구원과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틀림없이 특별하고 기적적인 일일 것이고, 또한 ... 언젠가 나에게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천연적인 상상을 하고 있었다. ... 그러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나는 결코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대신 나의 영적인 체험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그저 정상적인 것들과 관계가 있었다. 오늘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갔다. 체험이 쌓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느낀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일처럼 보인다. ... 이제 나는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그것들이 정상적일수록 더욱 합당하고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영적인 일들은 정상적일수록 더욱 풍성하다.

나는 진실로 육십여 년의 체험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실재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다. 우리 걸사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지만, 우리 속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측면을 거의 버렸다. 그들은 또한 성령께서 사람들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문제를 희귀하고 이상한 일로 만들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이러한 영적인 일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구원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새 길을 위한 훈련의 말씀(상), 10 장, 143-14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집회와 봉사의 성경적인 길, 13 장

4/1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10:12-13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3:8

8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불니다. 그대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벤전 1:3-4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4 곧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벤전 1:22-23

22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3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나 우리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아는가? 우리는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얻는다! 이것이 기적이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기적, 곧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옷을 차려 입거나, 자신을 할 수 있는 만큼 단정하게 하거나, 격식을 차려 기도하려고 합당한 방식으로 무릎을 꿇고 경건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 며칠 동안 ‘주님을 시종들’ 필요가 없다. 내가 오직 해야 할 것은 다만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나의 누림으로 얻는다. 이것이 이 우주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총체이자 완전한 총합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이다. 우리는 운전하고 있을 때나 잠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집회와 봉사의 성경적인 길, 13 장, 21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거듭남은 하나의 기적적인 정상이다. 어떤 속생명파 교사들은 거듭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거듭남을 ‘최초의 축복’이라고 부른다. 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몇 권의 저술들을 읽어 보았지만, 오스틴 스팅스(T. Austin-Sparks)가 쓴 글을 읽고서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거듭남이란 우리의 인간 생명 외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정의(定義)를 읽고서 기뻐다. 그날부터 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나서(요 3:3, 5-6)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요 1:12-13).

우리는 많은 이들이 ... 순간적으로 참되게 거듭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기적적이지만 정상적이다. 그것은 기적적인 정상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집회와 봉사의 성경적인 길, 13 장, 213, 215 쪽)

이제 나는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사용하여 영적 생명에 속한 일들이 정상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겠다. 로마서 10 장 6 절과 7 절은 ... 아무도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릴 수 없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무저갱으로 내려가시게 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할 수도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셨다. ...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기를 예비해 두신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기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면 공기를 들이쉬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단지 입을 열어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럴 때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영이신 주님은 이미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말씀이신 주님 또한 이미 우리의 손에,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영을 접촉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공급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려오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체험이어야 한다. ... 무디 형제는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영적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이 위대한 일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기적적이지만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적적인 정상이다. (새 길을 위한 훈련의 말씀(상), 10 장, 149, 1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새 길을 위한 훈련의 말씀(상), 10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2권,
생명나무, 1장

찬송: 548 (英) 나는 피조된 그릇 (中:425)

- 1 나는 피조된 그릇 보배인 주 담았네
나는 주님의 그릇 주는 내 안의 내용.
- 2 주 형상대로 지어 주 거하기 적합해
내용인 주 담도록 하나님 날 지었네.
- 3 주는 지금 내 영에 거하며 날 붙드네
나는 그와 한 영 돼 실재의 공급 받네.
- 4 매일 내 속에 거해 교통하며 가르쳐
주가 나의 각 부분 적시며 보호하네.
- 5 그를 표현함으로 사람들이 주 보리
내가 투명할 때에 주 날 통해 나타나.
- 6 내 온 존재 부서져 변화되기 원하네
진흙 모습 변하여 보배 모양 되겠네.

4/2 주일

아침의 누림

시 23:1-6

- 1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 4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5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3:21-4:25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 장, 6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인정됨과 부활

로마서 1:4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2, 54-56 장

churchinnyc.org/bible-study